

한국어촌어항협회, 태안 유류오염 굴양식시설 철거사업 완료

오염양식시설 및 폐각 15,794톤을 수거·처리



▲ 철거전



▲ 철거후

한 국어촌어항협회는 지난 5월 16일 착수, 추진한 태안 유류오염 굴양식 시설 철거사업을 8월 23일 준공했다.

총사업비 123억원이 소요된 이 사업에서 협회는 태안군 의항리, 소근리, 신두리 해역 172ha에서 오염양식시설 및 폐각 15,794톤을 수거·처리하였으며, 어장바닥의 경운작업과 오일펜스

설치 등의 2차오염 예방작업도 실시하였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일어난 태안군 앞바다 유류사고로 오염된 굴양식어장의 2차 오염을 예방하고 환경복원을 위하여 피해시설물 철거작업을 서둘러 시행해야함을 같이 인식, 피해 어업인을 적극 참여토록 하여 민원에

방과 어업인의 생계지원 및 환경복원이라는 일석삼조의 성과를 거양하였다.

그동안 100만명이 넘는 자원봉사자의 열정과 국민의 염원 그리고 정부의 노력으로 태안은 빠른 속도로 되살아났고, 이번 사업으로 인하여 태안이 옛 모습을 되찾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독도 주변해역 해양쓰레기 분포 실태조사 및 수거사업 착수 서해특정해역 주변어장 해양폐기물 수거처리사업도 실시



한 국어촌어항협회는 울릉도 독도 주변해역 해양쓰레기 분포 실태조사(이하 독도수거처리사업) 및 서해특정해역 주변어장 해양폐기물 수거처리사업(이하 서해수거처리사업)을 지난 8월 8일 본격 착수하였다.

독도수거처리사업은 사업비 6억원을 들여 독도주변 수심 100~200m 이내 약 6,500ha의 면적을 인양틀로 예인하여 해양쓰레기 분포를 실태조사하고 수거·처리할 예정이며, 서해수거처리사업은 사업비 5억2천만원을 들여 인천광역시 옹진군 서해특정해역 주변어장 약 25,100ha의 면적에 분포되어있는 폐어망·어구 등 116톤을 수거·처리할 예정이다.

이들 사업은 주변어장의 어족자원관리 및 해양환경보전을 위해 수년간 침적 방치된 폐기물을 수거·처리함으로써 어업생산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바다여행 회원 대상 무료 강좌 오픈 - '바다여행 인터넷교실'

수준 높은 IT강좌를 무료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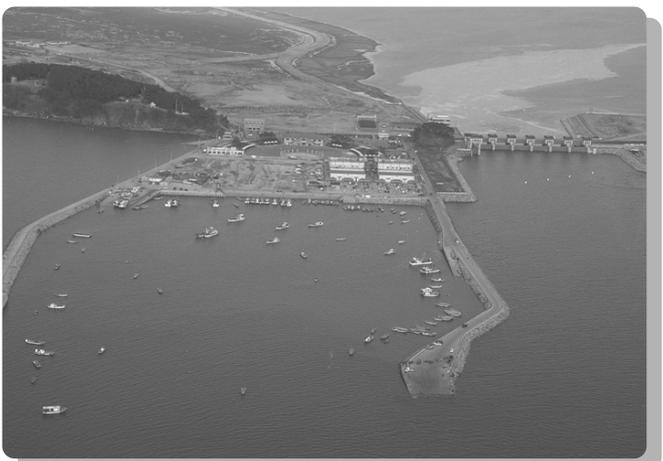
한 국어촌어항협회가 운영중인 '바다여행'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무료 강좌를 8월중 오픈한다.

컴퓨터 기초, 문서작성 등 기초적인 IT교육부터 이미지, 동영상 편집, 홈페이지 만들기 등 전문교육까지 무료로 제공하는 이번 강좌는 '바다여행'의 회원과 정보제공자에게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여 바다여행 콘텐츠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회원에게 혜택을 부여하여 '바다여행'을 활성화 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 무료강좌는 플래시 애니메이션과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 기술을 활용하여 자칫 딱딱한 IT지식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교육 프로그램 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인 기술을 도입, 모뎀 사용자도 부담없이 수강 가능하도록 하였다.

국가어항 6개소 신규지정 대상 확정

태풍 등 기상악화시 서·남해안지역 어선안전수용률 증대



▲ 공평항 전경

농 림수산식품부는 기상악화시 어선의 안전수용 및 부족한 어항시설 확충을 위해 2007년 3월부터 2008년 7월까지 어선안전수용률이 낮은 서해안과 남해안지역의 지방어항 및 어촌정주어항을

대상으로 국가어항 지정 타당성을 조사한 결과, 지정기준 등에 적합한 6개항을 국가어항으로 신규지정하기로 하였다.

금회 국가어항으로 새롭게 지정되는 어항은 경기도 화성시 공평항, 부산시 강서구 가덕도 천성항, 충남 당진군 장고항, 전남 완도군 이목항, 경남 고성군 남포항 및 하동군 노량항으로써, 그 동안 국가어항 지정타당성조사용역을 통해 전국의 어선척수, 수산업현황 등을 조사·분석하여 적정수준의 어항수요를 예측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전국 연안의 지방어항, 어촌정

주어항, 소규모포구 2,201개를 대상으로 입지여건 및 이용실태, 기초자치단체별 어선안전수용률, 어항지정기준, 경제성 및 환경성에 대해 면밀히 평가한 결과 6개를 국가어항 신규지정 대상으로 선정하게 되었다.

이번에 국가어항 지정대상으로 선정된 6개항은 앞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금년 중으로 관보에 확정·고시할 계획이며, 2009년부터 항별 기본설계, 환경영향평가,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2012년경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번 국가어항 추가지정으로 그동안 대형태풍 등 기상악화 시 어선대피에 필요한 어항시설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은 어업인들의 생명과 재산보호는 물론 낙후어촌의 정주환경개선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